

## 대구강서소방서 119구급대, 심정지 환자 생명 구한 영웅



대구강서소방서는 119구급대가 지난 7월 전문적인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사고일 오후 7시 반쯤 관내 헬스장에서 흉통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장 김경수, 신구범, 소방사 배기환 대원은 즉시 현장

으로 출동했다.

환자는 구급차에서 2번의 심정지가 발생해 심장충격기(AED), 가슴압박, 산소투여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며, 구급대원들의 신속·정확한 응급처치로 회복된 환자는 대화까지 가능해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퇴원한 환자는 생명을 구해 준 구

급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응급처치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을 격려한다며 앞으로도 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강서소방서>



구지면 보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명절 ‘희망꾸러미’ 전달

구지면 보듬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백운태)는 지난 9일(월) 구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석명절 희망꾸러미를 직접 포장해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했다. 희망꾸러미는 총 60가구에 전달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구지면 보듬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박희범, 민간위원장 백운태)는 지난 5일(목)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옥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 명절 맞이 ‘따뜻한 정(情)’ 나눔사업

옥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윤태영 읍장, 민간위원장 최태영)는 지난 4일(수) 추석 명절을 맞이해 ‘따뜻한 정(情)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옥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태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협의체 위원들이 한마음을 모아 진행했으며, 옥포읍 지정기탁금으로 구매한 소불고기 밀키트와 떡국 떡, 사골곰탕 등 식품품 꾸러미를 만들어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전달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국내 최초 아시아 영화 중심

# AsiaM

추억의 홍콩 클래식 명작부터 트렌디한 신작까지  
다채롭게 편성하는 뉴트로 채널

푸른방송 110번 KT 90번 SKB 80번 LGU+ 55번